

중동 리스크 대응 '수출기업 지원' 방안 모색

전북자치도·도 경제통상진흥원,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기업 맞춤형 지원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중동 지역 경제 불안에 따른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2일 '중동 리스크 대응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 해상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동 및 인근 지역으로 수출 중인 도내 기업들과 함께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인해 선적 지연과 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은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압박과 추가 물류비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선사 측에서 부과하는 추가 요율로 인해 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중동 지역 경제 불안에 따른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2일 '중동 리스크 대응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 부담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수출 물류 지원과 수출 보험 활용 안내,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수출 기업 지원의 현장 실행기관으로서 기업 애로를 신속히 접수·분석하고 필

요한 지원사업과 전문기관을 연계하는 등 대응 거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출애로해소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세, 통관, 물류, 보험, 계약 등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

크를 사전에 진단·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기업이 신속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애로 긴급 접수창구(1644-7155)'를 상시 운영하며, 관세사와 통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공급망 불안, 계약 지연, 통관 문제 등 현장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도내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은 앞으로도 수출기업 간담회와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과 지원사업에 반영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시니어 특화 금융 서비스 제공

전북은행, 고령층 편의성 위해 '장승로지점' 리뉴얼 오픈

전북은행이 시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주 소재 장승로지점을 시니어 특화 영업점으로 리뉴얼하고 맞춤형 금융 상품 안내 리플렛을 제작했다.

전북은행은 11일 장승로지점을 고령층 이용 환경에 맞춘 시니어 특화 점포로 새 단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점은 고령층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성된 영업점으로, 시니어 고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과 동선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지점 내부에는 고령 고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자동화기기 구역에는 안전바를 설치했다. 또 고객이 창구와 화장실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컬러 유도선을 적용해 직관적인 동선을 구축했다.

장승로지점은 전북은행의 예금 전문 영업점으로 운영되며 복잡한



대출 업무 대신 예·적금 상담과 관리에 집중한다. 동시에 '실버주택연금대출' 상담과 취급 기능을 강화해 노후 자금 마련을 고민하는 시니어 고객들에게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은행은 이번 리뉴얼에 맞춰 시니어 고객이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니어 추천상품 리플렛'도 제작했다.

전북은행은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오프라인 금융 이용 비중이 높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상생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특화 영업점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오상근 기자

인공지능 전환 사업 통합 공고로 기업 편의 높인다

중기부·과기정통부·산업부, 주요 AX 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주요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기업 지원에 나선다.

3개 부처는 2026년 주요 AX 사업 11개, 총 4,2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공고는 AI 전문기업과 제조기업 등이 정부 사업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기업들은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통합 공고를 통해 주요 AX 사업을 한 번에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참여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부처는 지난해 10월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제조 분야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통합 공고에는 AI 에이전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AX 스프린트),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 AI

바우처, AI 가상융합, 스마트공장 등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세 부처는 AI 에이전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중기부는 식품·뷰티·제약 등 중소 제조 특화 및 소비자 밀착 분야를 중심으로 다중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과기정통부는 의료 초음파나 상담 서비스 등 공공성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산업부는 생산계획, 공급망 관리, 재고 운영 등 제조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분야에 AI 에이전트를 개발·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세 부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기 위해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조기에 출시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AX 스프린트)' 사업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중소 제조 현장의 공정 혁신을 위한 AI 솔루션 보급을 확대하고, 과기정통부는 생활 밀착형 분야와 네트워크·보안 분야에 AI 융합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사전 제조 설비 점검 로봇 등 실생활 제품에 AI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기업 맞춤형 AI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하며, 과기정통부는 AI와 가상융합 기술을 접목한 산업혁신 프로젝트와 AI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 산업부 역시 제조 현장에 산업 AI 솔루션을 적용하는 실증·확산 사업을 올해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실수요자 택지 공급

전북개발공사는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단독주택용지와 준주거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등 총 31필지를 3월 25일부터 전자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단독주택용지 16필지, 준주거시설용지 13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로 구성된다. 단독주택용지는 필지당 약 1억78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 준주거시설용지는 5억800만 원에서 8억9200만 원, 주차장용지는 3억6700만 원에서 3억7300만 원 수준이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

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운비드를 통해 진행되며,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접수한다. 유찰된 토지는 별도의 일정 에 따라 재공급할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번 택지 공급이 지역 주거 수요를 충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고창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이 조성한 택지 공급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과 인구 감소 대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상근 기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전 과정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13일 공고하고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 전 과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치 평가 비용 지원과 관련 정보 제공, 전문가 자문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기업가치 평가 비용 지원에 더해 기업실사 비용과 PMI(Post-Merger Integration·합병 후 통합) 컨설팅 비용 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M&A 준비 단계부터 사후 통합 단계까지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매도 기업은 기업가치 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40%를 최대 1,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60%까지 지원된다.

또 매수 기업은 기업실사 비용 지원을 통해 재무·법무 리스크 점검을 위한 법률·회계·세무 통합실사 비용의 50%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분야별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이울러 합병 이후 조직·인사·재무 등 경영 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PMI

컨설팅을 진행한 기업은 최대 2,500만 원 한도에서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3월 13일부터 M&A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중소기업에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M&A를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김제 광활면 시설감자 생육 상황 점검

전북농협은 지난 11일 김제시 광활면을 방문해 본격 출하를 앞둔 봄감자의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 점검에는 전북농협과 광활농협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김제시 광활면은 전국 최대 시설감자 생산지로 꼽힌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는 간척지 토양의 풍부한 미네랄과 서해 해풍 등 감자 재배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포슬포슬한 식감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